

3) 순천매산학교

전남지역에 1900년대 초기부터 기독교계 학교가 설립되었는데 처음에는 초등부만을 운영하다가 중등부까지 확대하였다. 이들 학교가 중등부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1907년에 목포영흥학교, 1911년에 광주송일학교와 광주수피아여학교, 1914년에 목포정명학교이다. 순천에는 1913년에 기독교계 사학으로서 매산학교의 전신 은성학교가 설립되었다.

기독교계 사학은 선교활동을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설립목적이 민족사학과는 다르다. 호남지역의 선교는 남장로계 선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1910년 순천에 선교부를 개설하고 선교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지역에 최초로 파송된 선교사 변요한과 고라복 목사가 1910년 4월에 금곡동 향교 근처에 한옥 한 채를 구입하여 예배당으로 사용하면서 30명 정도의 학생들에게 성경과 신학문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1년 후인 1911년 학생수가 점점 늘어나 매곡동 현 중학교 자리에 교사를 지어 이전하였고, 1913년 9월에 사립은성학교로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당시 설립자 겸 교장에 고라복 선교사가 취임하였다.

학교의 설립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 학문과 교양을 쌓는 지성인 그리고 전문기술을 습득하여 직업활동을 하며 사회에 봉사하는 기술인을 육성함에 두었다. 교과목은 성경을 비롯하여 역사, 기하, 한문, 공작(목공·놋쇠제조·토끼사육) 등이었다. 1914년에 건축한 지하1층, 지상2층의 석조건물(현 중학교 매산관)과 1915년에 건축한 5층 벽돌건물의 안력산병원(현 고등학교 장학사 자리)은 당시 이 지역에서 가장 크고 높은 건물이었다. 이 학교에서는 학비조달과 기술교육을 위해 제재소를 만들어 학생들이 일할 수 있도록 했고 놋쇠제조·토끼사육법 등을 가르쳤으며, 실습시간에 만든 물건들을 미국에 팔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1915년에는 개정 사립학교규칙에 의해 사립학교의 자유를 엄밀히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계 학교에 대해서도 종교교육의 금지조항을 강하게 적용하였다. 학교 허가신청서에 모든 규정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으나 성경 금지조항이 문제가 되어 서류가 반송되자 선교회에서는 재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1916년 총독부에서는 학교 책임자인 구레인(T. C. Crane) 선교사에게 학교가 학생에게 가르칠 교과목에 종교교육 과목인 성경을 제거하지 않고 설립허가를 낸 것은 분명히 현행법에 위배되므로 이러한 교육행위는 허가할 수 없다고 통고하자,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를 하였으나 폐교되고 말았다.

테라우치 총독이 물러나고 사이토 총독에 의한 문화정치가 시작되자 1921년 미국 남장로계 선교부 주선으로 성경을 정규교과로 교육시키는 학교로 인가를 받아, 사립매산학교와 매산여학교로 5년 만에 복교되었다. 남학교 교장에는 구레인 박사가, 여학교 교장에는 맥미다(M eta. L. Bigger) 선교사가 각각 취임하였다. 1922년 9월에 이닐린(J. B. Reynolds) 박사가 그리고 1925년 4월에는 선교사 원가리(J. R. Unger) 목사가 취임하였고, 1937년 9월에는 신사참배 강요에 불복하여 또다시 폐교되었다. 매산학교는 일제시대에 두 번이나 폐교되었다가 복설되는 비운을 겪었다.

1차 폐교된 사유는 1915년에 개정된 사립학교규칙에 의해 종교교육 과목을 제거할 목적으로 교명을 고등보통학교나 보통학교로 변경하도록 하는 압력 때문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규칙의 취지는 외국인의 치외법권적 특권과 종교계 학교라는 점을 이용하여 종교교육과 예배의식을 빙자해서 행하는 반일적 교육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민족계 사학의 경우 1908년에 공포된 사립학교령에 따라 반일적 교육을 척결하고 경우에 따라 폐교시키는 강경한 조취를 취함으로써 민족교육의 근원을 차단하였으나, 구미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종교계

학교에 대해서는 구미 열강이 주시하고 있으므로 통제의 강도를 높일 수 없었던 것이다. 사립학교의 고등보통학교 또는 보통학교로의 교명변경을 강제로 유도하는 이 규칙에 대해, 기독교계 학교들은 교육사업의 본래 목적인 선교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반발하였다. 학교의 재인가와 고등보통학교로의 전환이 없을 경우 잡종 중등학교나 각종 학교로 격하됨으로써 학력인정이 안 되는 불이익을 감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대다수의 종교계 학교들은 현실론을 들어 일제의 이러한 유도에 순응하였으나 장로파의 경우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대부분의 장로파 학교들은 잡종학교로 전락하는 비운을 감내하였으나, 순천은성학교는 당국의 종교교육 제한정책을 항의하여 폐교되는 불운을 당하였고, 1921년 매산학교로 복설되었다.

1937년의 2차 폐교는 신사참배 거부로 인한 것이었다. 전남지역의 기독교계 학교들은 보수적인 장로회 계통의 학교들로 특히 남장로회는 신앙을 절대시하는 입장이었으며, 1930년 신사참배문제에 대해서도 강경보수 입장을 천명하여 기독교계 학교의 최대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일본총독부는 1926년에 서울 남산의 조선신사를 완공하여 조선신궁이라고 칭한 후에 이를 한국 내 신사의 총본산으로 삼고 종교의 자유까지 침탈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1920년대까지는 신사참배가 일반 국민이나 사립학교까지 강요되지 않았으나 군국주의화한 1930년대부터는 그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1932년에 평양에서 만주사변 중 사망한 전몰장병위령제사건 이후 총독부는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에 신사참배를 명령하였다. 이러한 명령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반발한 것은 남장로교계의 학교인데, 남장로교 선교부와 학교측은 동방요배의 행사에는 참여할 수 있으나 신사참배에는 기독교신앙의 원리상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불응할 것임을 당국과 교직원 및 학생에게 통고하였다. 남장로교계 학교들은 전라도에 주로 소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신사참배문제는 1930년대의 식민지정책의 강화로 불어닥친 이념논쟁이었다. 천주교측 학교들은 신사참배를 단순한 애국적 행사로 인정한 교황청 포교성의 성명에 따라 신사참배에 응함으로써 아무런 박해도 받지 않았으며, 감리교나 안식교측 학교들도 이에 응함으로써 학교운영에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장로교계 학교들은 일제의 국수주의적 종교를 앞세운 이데올로기 지배형식에 밀려 전국적으로 18개 학교가 폐교되는 운명을 맞게 되었다. 1937년 9월에 순천매산학교도 신사참배 거부로 폐교당하였다. 이무렵에 폐교된 학교는 광주 의수피아여중, 목포의 영흥학교와 정명학교, 전주의 신흥학교, 군산의 영명학교이다. 당시 교장 원가리 박사와 부교장 최정완 장로 등 수백 명의 학생들은 최후의 폐교선언을 듣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애통함을 못 이겨 스승과 제자들이 서로 부둥켜안고 대성통곡하였다. 신사참배문제라는 이념논쟁으로 희생당한 순천매산학교는 순천지역의 열악한 학교 여건에 큰 타격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일단의 국가주의나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제기되지 않고 선교사들의 순수한 종교상의 문제로서만 쟁점화되었을 뿐 더 이상 확대되지 않은 이념논쟁으로 그쳤다.

1945년 감격스러운 해방을 맞아 1946년 9월 24일 복교되었고, 교장에 고래위 박사가 취임하였다. 당시 복교된 기독교계 학교들이 초등학교로 다시 시작하지 않고 중등학교로 재출발한 것은 1면에 1교 이상의 초등학교가 설립되어 그 기초가 어느 정도 세워졌기 때문이다. 1950년에는 6년제 중학을 중·고로 분리하는 학제에 따라 순천은성고등학교로 교명을 바꾸었고, 1956년에 다시 매산학교로 통일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매산학교는 설립목적인 기독교 신앙교육에 대한 억압과 핍박이 닥쳐올 때마다 타협하지 않

고 스스로 문을 닫았다. 온갖 위협과 고난의 길을 걸어오면서 매화처럼 깨끗하게 신앙을 지키며 이 지역 선교와 인재양성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종교계 학교가 우리나라에 건립된 초기에는 서당식 교육과 초등교육의 단계를 거치면서 중등교육기관으로 자리잡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변화과정이었다. 따라서 이 학교도 4년제 보통과를 중심으로 설립된 것으로 여겨진다. 1921년 전의 교육과정은 자료가 없어 알 수 없으나, 1921년 매산학교로 복설되었을 당시의 학적부를 보면 수업연한 6년 과정의 보통과와 2년 과정의 고등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중등부를 운영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고등과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1921년 전에 설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보통과의 교과목은 성경·수신·국어·조한(朝漢)·수학·역사·지리·박물·국한(國漢)·영어·도화·창가·실업·체조로 구성되어 있고, 고등과의 교과목은 성경·수신·국어·조한·수학·역사·지리·이과·국한·영어·도화·창가·직업·체조 등이다. 학비조달과 기술교육을 위해 제재소·주물실습공장, 그리고 토끼·돼지·소·양 등의 축산부를 설치하여 원하는 학생들에게 가르쳤다. 이것으로 보아 학생들을 위해 직업교육을 실시한 것을 알 수 있다.